

# 다시 찾고픈 '나주밥상 대표 맛집' 선정...20일 신청 마감

### 민선8기 공약사업 '나주밥상 브랜드화' 본격 추진

### 1차 서류심사·2차 전문가 현장평가 거쳐 2월말 선정 발표

나주시가 민선8기 주요 공약인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대표 맛집 업소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대로 지역에 이어져온 향토 음식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나주만의 맛과 멋이 담긴 먹거리 관광 명소화 추진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갈나게 즐거운 나주 밥상 구현을 비전으로 브랜드화 하는게 목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10~11월 소비자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표 맛집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지난 6일에는 '나주밥상 대표 맛집 지정·육성지원 표준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대표 맛집 선정 대상(업체)은 공고일 기준(6일) 나주시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외식업체다.

현재 나주시 관내 음식점 등록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1650곳으로 집계됐다.

오는 20일까지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미경과', '영업정지 처분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등에 해당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행정처분 유무 조사와 결격사유를 평가하고 2차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2월 말 대표 맛집을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음식품질'(음식 메뉴·서비스 등)과 '위생·시설 관리' 부문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 '지정증'과 '지정패'가 교부되며, 나주밥상 지원 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주요 지원 분야는 '시설환경 개선', '누리집 홍보·콘텐츠 제작', '경영마인드 위생·서비스 교육',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무인 주문단말기), '종사자 위생복'(앞치마·위생모), '나주밥상 브랜드 식기·위생용품' 등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맛과 멋, 건강이 담긴 나주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나주밥상을 대표하는 나주곰탕, 영산포 속성홍어, 구진포 강어. (사진=나주시 제공)

## 화순군 표준지 공시지가 6.14% ↓ ...14년 만에 하락

### 2021~2022년 급등 후 하락

화순군은 12일 화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14% 하락했다고 밝혔다.

화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그동안 화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3~4% 인상되다가 2021년 10.49%, 2022년 9.97% 큰 폭으로 올랐다.

2021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급등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집

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기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딸기, 말레이시아로 올해 첫 수출

### 신규 수출국 발굴 및 고품질 생산 컨설팅 성과



곡성군 딸기가 말레이시아로 올해 첫 수출길에 오른다.

곡성군이 12일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 공동 선별장에서 '맘애타' 딸기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만, 싱가포르 시장에 곡성멜론을 수출한 데 이어 곡성딸기를 말레이시아 시장에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다변화에 적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말레이시아 딸기 수출을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연계하여 수출전문업체 발굴, 수출단계, 포장재 규격 등을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 또한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지원으로 수출 딸기 선도유지 설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산화염소, 이산화탄소 훈증에 의한 부패율 경감 기술을 활용해 수출 시 흔히 발생하는 물러짐과 부패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담양군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41개 사업 17억 3,750만 원 지원...2월 9일까지 신청

담양군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사업은 식량작물 분야에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등 6개 사업, 원예 분야는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시범 등 8개 사업, 신소득·과수 분야는 이상 기상 극복 과수 안정 생산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을 지원한다.

축산 분야는 화재 격정 없는 가축 원격외선 보온등 보급 시범 등 10개 사업, 농촌자원 분야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등 8개 사업, 교육경영 분야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5개 사업을 지원한다.

총 41개 사업, 17억 3,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다.

담양=박종영기자

## 구례지역자활센터 설 명절맞이 자활생산물 판매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철승)는 2023년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은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각 사업단에서 만든 질 좋은 자활생산품을 본격 판매에 나섰다.

'자활생산물'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제조기술을 익혀 스스로 만들어낸 상품으로 5가지만 김부각, 수제 비트청과 조청, 꽃담(꽃을 담아가시게)세트, 새싹인삼(새삼먹고 기지개를 켜삼) 등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구례지역자활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집중적으로 판매에 나서므로써 '자활상품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활상품 판매점은 ▲구례지역자활센터=구례

읍 구례로 508(781-7970) ▲구례축협하나로마트(구례읍 봉동길 9) 와 인터넷주문 ▲구례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www.구례지역자활센터.kr) ▲녹색나눔장터(www.greenanum.co.kr) ▲구례군 로컬마켓 등 5곳이다.

구매방법은 전화와 인터넷, 직접 주문하면 된다. 구례군 관내에는 어디든지 무료로 배송되며, 택배마감은 17일까지로 주문을 원할 경우 구례지역자활센터(061-781-7970)로 문의하면 된다.

양철승 센터장은 "구례에서 생산한 특용작물로 품질 좋은 구례만의 상품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특산품들이 구례 지역 이외에 전국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